

“국민 바이오 데이터, 신약 개발에 활용… 수익 배당해야”

‘국민 신약 배당’ 정책 제안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료보험, 데이터 통합관리 가능
AI·바이오 선도국 도약의 기회”

K-멜로디 ‘신약 가속 프로젝트’
2028년 의료 AI모델 공개 목표

국민의 바이오 데이터를 활용해 신약 개발에 활용하며, 이에대한 수익을 국민에게 배당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인공지능(AI) 강국’이 핵심 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인공지능과 바이오의 융합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11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K-멜로디(K-MELLODDY)사업단은 ‘국민 신약 배당’ 정책을 제안했다. 국민의 바이오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며, 해당 기술로 신약개발에 성공하는 경우 원천 데이터 제공자인 국민에게 수익을 배당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 과정은 정부 주도의 ‘국민 바이오 데이터 공익화’를 바탕으로 이뤄진다.

김화중 K-MELLODDY 사업단장



11일 오전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열린 ‘국민 신약배당 정책 제안 설명회’에서 김화중 K-MELLODDY 사업단장이 발표하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은 “우리나라는 전 국민 단일 의료보험 체계 등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의료 바이오 데이터 통합 관리 역량을 갖췄다”며 “국민 바이오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다 국가와 차별화된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인공지능 및 바이오 선도

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제안된 방식은 ‘인공지능 모델 우선’ 체계. 건강보험, 진료, 유전체 등 각종 바이오 데이터를 수집하기 전에, 목적지향형 인공지능을 먼저 구축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엑스레이 판독용, 코로나 감염 예측용처럼 목적에 따라 필요한 데이터만 학습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접근법은 바이오마커 발굴, 개인 맞춤형 치료, 약물유전체학 등으로 세분화되면서 전문성을 높여준다. 이후 이 인공지능 모델이 개별 기관이나 병원으로 가서 학습을 수행한다. 데이터의 직접 이동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정보 유출 위험은 줄이고 민감 정보 보호 및 활용은 동시에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 K-MELLODDY 사업단은 지난해부터 인공지능 모델 개발 과정을 진행해 왔다. 연합학습 기반 신약 개발 가속화 프로젝트를 전개하고 있고, 오는 2028년까지 약물 흡수와 분포, 대사, 배설 및 독성 등에 특화된 인공지능 모델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김 단장은 “아직 부처와 협의된 것이

없지만, 이번 제안을 계기로 향후 정책이 실현되는 경우 이미 실생활에서 익숙해진 디지털 전환 사례인 정부24, 홈텍스 수준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인공지능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전략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지난 2021년 업계 최초 인공지능 신약팀을 선보였고 이후 인공지능 신약개발 시스템 ‘데이지(DAISIY)’를 공개했다.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신약개발의 난제를 해결함은 물론, 방대한 화합물질 오픈소스를 신약개발을 위한 데이터로 최적화하는 데 역량을 쏟는다.

JW중외제약도 지난해 인공지능 기반 신약 연구개발(R&D) 통합 플랫폼 ‘제이웨이브’를 본격 가동했다. 기존 빅데이터 기반 약물 탐색 시스템인 ‘주얼리’와 ‘클로버’를 통합하고, 모델 적용 범위를 대폭 확장한 것이 특징이다. 앞서 JW중외제약은 ‘주얼리’와 ‘클로버’를 통해 10여 개의 혁신 신약 후보물질을 발굴한 바 있다.

국내 대표 연구개발 제약회사인 한미약품은 신약개발뿐 아니라 첨단과학 분야에서도 기술력을 내재화하고 있다. 비만 신약 후보물질인 HM17321은 인공지능 및 구조 모델링 기술을 활용해 설계됐다. 표적 수용체에 대한 선택성과 정밀도를 비약적으로 향상시켜 지방은 줄이고 근육량은 늘리는 기전을 규명했다.

유한양행은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과 협력을 강화했다. 지난해 말 온코마스터, 휴레이포지티브 등과 인공지능 모델을 이용한 신약개발의 포괄적 공동연구 계약을 체결했다. 인공지능 기반 치료 반응 예측 플랫폼을 통해 기존 치료는 도달하기 어려웠던 ‘의미 있는 임상적 통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갤럭시, 파로스아이바이오 등 인공지능 신약개발 전문 기업들도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갤럭시는 단백질 구조의 물리적, 화학적 원리를 학습한 단백질 설계용 플랫폼 ‘갤럭시 디자인’을 보유하고 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보급형 AI폰 ‘갤럭시 A36 5G’ 국내 출시

삼성전자, 6.7형 디스플레이 적용
AI플랫폼 ‘어썸 인텔리전스’ 탑재

삼성전자가 실속형 스마트폰 ‘갤럭시 A36 5G’를 국내에 공식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큰 화면과 인공지능(AI) 기능, 대용량 배터리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갤럭시 A36 5G는 6.7형(170.1mm)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에 최대 120헤르츠(Hz) 주사율을 지원하는 콘텐츠 감상 특화 모델이다. 밝기도 최대 1200니트(nits)로 야외에서도 선명한 화질을 구현한다.

카메라는 후면에 ▲5000만 화소 광각 ▲800만 화소 초광각 ▲500만 화소 접사 렌즈를 탑재했다. 흔들림을 줄이는 광학식 손떨림 보정(OIS)과 동영상 손떨림 보정(VDIS) 기능도 함께 적용됐다.

신제품에는 A 시리즈 전용 모바일 AI 플랫폼인 ‘어썸 인텔리전스’도 탑재됐다. 사진 속 불필요한 요소를 지우는 ‘AI 지우개’, 나만의 스타일을 적용하는 ‘나만의 필터’, 화면 속 궁금한 사물을 동그



삼성전자가 실속형 스마트폰 ‘갤럭시 A36 5G’를 국내에 공식 출시한다. 삼성전자 모델들이 새롭게 출시한 ‘갤럭시 A36 5G’를 소개하는 모습.

/삼성전자

라미로 표시하면 검색해주는 ‘서클 투 서치’ 등 다양한 AI 기능을 지원한다.

스마트폰에서 재생 중인 음악 정보를 AI가 분석해 제목을 알려주거나, 우측 측면의 AI 버튼을 눌러 음성 명령을 내리는 것도 가능하다.

배터리는 5000mAh로 하루 종일 사용할 수 있다. 전작보다 15% 넓어진 베

이퍼 챔버로 발열을 줄여 장시간 사용에도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한다.

화면 전·후면에는 ‘고릴라 글래스 빅터스 플러스’가 적용돼 외부 충격에 강하며, IP67 등급의 방수·방진도 지원한다.

색상은 어썸 라벤더, 어썸 화이트, 어썸 블랙 등 3종으로, 출고가는 49만 9400원이다.

/이혜민 기자 hyem@

“기후에너지부 신설, 국정기획위원회와 협의”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신임 1차관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신임 1차관이 11일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관련해 “향후 국정기획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1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기후, 에너지 문제는 시급히 추진,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안중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대해 산업부 식구들의 관심이 큰 것을 알고 있다”며 “에너지를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공약에도 포함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후, 에너지 정책은 산업, 통상과 정책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하고, 될 수 밖에 없다”며 “이 점을 염두에 두고 국정기획위원회, 장관님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1차관은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대한 직원들의 우려를 인식한 듯 “절대 우왕좌왕하고 불안해할 사안이 아님을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문 1차관은 취임식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관련해 “국정기획위원회가 아직 정식으로 발족도 안 됐기 때문에 국정기획위원회와 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틀이 잡히고 방향과 내용들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車 업계 혁신기술, 생활의 편리·안전 도모

» 1면 ‘뚝뚝해야 산다…’서 계속

또 차량내 음성인식 기술도 과거의 버튼을 조작한 뒤 음성 명령하는 방식을 넘어 차량이 음식을 인식해 운전자가 별다른 움직임 없이 음성만으로 차량의 공조장치를 설정할 수 있다.

차량이 차선을 이탈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도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현대차·기아의 최신 모델에는 차량이 스스로 차선 중앙을 유지할 수 있는 자율주행 모드까지 지원해 장거리 운전시 피로를 줄여주고 안전한 운전 환경을 제공한다.

자동차 업계는 AI 기술을 접목한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기술 개발과 보급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해 10월 웨이모의 6세대 완전 자율

주행 기술 ‘웨이모 드라이버’를 아이오닉5에 적용해 로보택시 ‘웨이모 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같은 기술 개발로 급속한 내수침체에도 올해 1분기 완성차 내수 판매는 총 32만6662대로 전년 대비 1.61% 증가했다. 국내 완성차 업계 만행인 현대차·기아는 올해 1분기 내수 시장에서 각각 16만6360대, 13만4412대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4%, 2% 증가한 수치다.

산업계 관계자는 “인공지능이 이제 는 보편화됐다. 과거 포털검색에서 유튜브로 이동했다가 이제는 생성형 AI로 넘어갔다”며 “가전과 스마트폰, 자동차도 AI를 접목해 편의성을 높인 제품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발행사 자본력·의도 따라 피해 커질수도

» 1면 ‘변동성 낮은 가상자산…’서 계속

◆ 스테이블코인 가격 유지 가능할까

이러한 장점에도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비판이 여전한 이유는 스테이블코인의 가격 안정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 ▲금 ▲가상자산 등의 담보물 등으로 가격을 유지한다. 예컨대 법정화폐를 담보로 한 스테이블코인은 코인을 1개를 새로 발행할 때마다 1달러씩 은행에 예치한

다. 보유자가 언제든지 코인을 달러로 바꿀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다.

현재 달러와 금, 가상자산 담보물의 변동성은커지고, 일부스테이블코인발행사는 담보 자산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발행사의 자본력, 의도에 따라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중앙은행의 법정 화폐 이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통화정책의 효과가떨어지고, 국제수지,외환보유액등 거시경제지표를 왜곡해 경제 정책 수립이 어려워질 수 있다.

세탁 자금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높다. A가 해킹으로 얻은 자산을 스테이블코인으로 바꾸어 상대방에게 전달하면, ‘A가 자산으로 스테이블코인을 구매’하고 ‘상당방에게 스테이블코인 몇 개를 전달’했는지만 기록된다. 넓게 보면 세금 회피와 특정국 경제제재의 우회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과 쉽게 거래할 수 있어 감독을 피해 해외로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며 “일단 감독이 가능한 은행권으로부터 (발행이)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